

보도 설명자료 (‘12. 1. 20)

수신 : 등록기자

제목 : “슬그머니 기름값 두배 올린 알뜰주유소”
보도에 대한 입장(조선일보, ‘12.1.20)

- 또한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판매량이 많아(약5배),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한 물량이 빨리 소진되므로
- 공급가 인상시기에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보다 빠르게 판매가격에 적용되는 점 고려할 필요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조영신 과장 (02-2110-5458)

1. 기사내용

- 1호점 20일만에 66원 인상, 다른 주유소는 29원 올려, 인근 주유소가 더 싸게 팔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[사실관계 확인]

- 1월 20일 현재 경동알뜰주유소 판매가는 1,909원/ L(휘발유)이며 경동주유소가 소재한 용인시 처인구 평균에(1,974) 비해 65원 낮은 수준
- 또한 경동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보도된 양지 및 원삼 주유소는 각각 19일 21시 및 11시경 1949원 및 1918원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경동주유소 보다 각각 40원 및 9원 높은 수준으로 현재는 경동주유소가 처인구의 최저가 주유소임

[지경부 입장]

- 최근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을 감안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차가 줄어든 것은 알뜰주유소가 마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일반주유소가 마진폭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